〈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사용 가능성 및 표현가치*

-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

이성규**
Leesk@inha.ac.kr

Contents

Ⅰ. 들어가기
Ⅱ.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Ⅲ. 남성 화자와 여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Ⅳ. 남성 화자와 청자 불명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Ⅴ. 맺음말

Ⅰ. 들어가기

일본어의 부정의 의뢰표현에는 부정의 조동사 <ない>의 접속형인 <ないで>에 수수동사 <くれる・くださる>계열과 <もらう・いただく>계열의 다종다양(多種多様)한 변이형(変異形)이 결합하는 문법형식 <ないでくれる>계열・<ないでもらえる>계열・<ないでくださる>계열・<ないでいただける>계열이 있다.(이상은 李成圭(2007c : 16-17) 참조) 그리고 <ないでくださる>계열의 형식으로는 보통체 말씨 <ないでくださる?・ないでくださらない?・ないでくださ

* 이 논문은 2014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A00019).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るか・ないでくださらないか>, 명령형 <ないでください>, 정중체 말씨 <ないでくださいますか・ないでくださいます?・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 정중한 질문을 나타내는 <でしょうか>가 후접(後接)한 <ないでくださるでしょうか・ないでくださらないでしょうか・ないでくださいますでしょう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은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속성 상 개인어(個人語)나 성차(性差)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각 개별 형식의 사용 가능성(성립 가능성)과 운용실태 그리고 사용빈도는 균등하지 않다. 의뢰표현은 그 성격상 대우표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의 결과가 제출되어 경어 연구에 원용할 경우, 지금까지의 규범의식과 허용에 준거한 연구방식에서 진일보하여, 경제성과 비경제성(여잉성, 餘剩性)이 공존하는 인간 언어의 특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술하는 새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る>계열의 형식을 포함한 부정의 의뢰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일본어학(일본어문법, 일본어 경어) 분야뿐만 아니라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하 일부 형식에 관한 논고를 제외하면 관견(管見)으로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 <ないでくださる>계열의 개별 형식의 사용 가능성 및 표현가치에 관한 연구에는 李成圭(2013a)李成圭(2013b)李成圭(2014a)李成圭(2014b) 등이 있다. 언어 연구의 시발은 구두언어와 문장체 언어를 아우르는 생생한 언어자료에 기초하여 언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어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예를 조사하면 의외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1].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도 실제 교수하고 있고 현실세계의 구두언어에서 다용되고 있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자화된 언어자료에서는 찾아내는 일은 수월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언어자료가 일본어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태(動態)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례가 추

1) 4585편의 방대한 작가의 작품을 담고 있는 [青空文庫.txt], 문장체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少納言]([KOTONOHA「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 구두언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어 오리지널 각본 배부 공개 사이트인 「はりこの虎の穴」(http://haritora.net/)(현재(2014/01/04) 3319편의 대본이 등록되어 있다)나 인터넷상의 문서를 대상으로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예를 검색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출되지 않는 것은 언어자료에 있어서의 우연의 공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한정된 수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실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형식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어떤 유형의 표현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례가 결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원어민에 작례를 통해 해당 형식의 사용 가능성 및 표현가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뢰표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는 화자와 청자의 성별,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남성 / 여성 / 성별 불명>과 같이 구별하고, 화자와 청자의 대우표현상의 인간관계인 상하관계를 <상위자(上位者) / 동위자(同位者)이거나 상위자(上位者) / 동위자(同位者) / 동위자(同位者)이거나 하위자(下位者) / 하위자(下位者)>와 같이 5단계로 차별화하고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인간관계인 친소관계에 있어서는 <친한 사이><소원한 사이><친소관계 불명>과 같이 3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수용한다. [2]. 이상의 방법론에 기초할 경우, 162개의 언어적・문맥적・상황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상정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면을 감안하여 화자가 남성이고 청자가 <남성/여성/불명>인 54개의 일본어 모어 화자에 의한 작례(作例)를 중심으로 하여, <ないでくださいますせんしょうか>가 의뢰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실제 현실세계에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 하에서 어떤 표현가치를 실현하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형태적 특징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ませんでしょうか]는 丁寧語인 [ます]의 부정인 [ません]에 丁寧語 [です]에서 파생한 조동사 [でしょうか]가 후접(後接)한 형태로서 二重 丁寧語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이중경어(二重敬語)에 관해서는

2) 화자와 청자의 경어적 신분 관계를 5단계로 구분하는 것에 관해 <상위자><동위자이거나 상위자><동위자>나 <동위자><동위자이거나 하위자><하위자>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설명원리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위자><동위자><하위자>와 같은 3분법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간 언어의 역동성이 관여하고 있는 의뢰표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상중하와 같이 구별하는 것보다 그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언어 현실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07년에 공간된『敬語の指針』(文化庁)」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敬語の指針(2007)』에서는 [~ましたでしょうか]와 같은 형식은 사용하고 있지만, [~ますでしょうか][~ませんでしょうか][~ましたでしょうか] 등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나「(そろい)ましたでしょうか」「(ござい)ませんでしょうか」 등의 소위 二重 丁寧語는 문말의 정중도를 지속시킴으로써 청자에 대한 경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언어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상업경어를 중심으로 하는 접객표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동일 계열의 문말이 부정의 정중체인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か>나 부정의 보통체 말씨에 정중한 질문의 <でしょうか>가 후접한 <ないでくださらないでしょうか>보다 경의도(敬意度)가 높다고 해석되며 문말에 부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すでしょうか>보다 정중도가 상승된다.

이하 2.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 남성 화자와 여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 남성 화자와 청자 불명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순으로 54개의 예가 각각의 주어진 언어적・문맥적・상황적 조건 하에서 어떤 표현가치를 실현하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그 결과, <ないでくださいます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가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간원(懇願)][원망(願望)]이나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실현한다는 점,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가 소원한 사이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와 상관없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이라는 표현가치를 나타낸다는 점,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가 불명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관계없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먼저 화자와 청자 모두 남성으로 상정되는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예부터 검토하자.

2.1 청자(남성)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1) お父さん、僕は大丈夫ですから、そんなに気を遣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3]
(2) お父さん、彼女とのデートを二度と邪魔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4]
(3) お父さん、糊が乾く前は、僕の写真を貼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도「お父さん」이라는 호칭을 통해 남성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上位者)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발화이라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인간관계인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묘사되어 있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気を遣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

3)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용례 및 사용 가능성 그리고 표현가치에 관해서는 和田康二氏(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장안대학 교수), 남성, 52세)와 上田浩子氏(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여성, 31세)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 이에 사의를 표한다. 또한 본 논문의 논지 전개 및 주장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4) 본 논문에서는 <ないでくださる>계열의 의뢰표현에 참여하는 총 13개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표현가치를 해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162개로 상정되는 예문의 균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각 형식마다 별도의 예문을 상정할 경우, 각각 상이한 표현가치가 산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형식의 용례의 서술내용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문말 술어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표현가치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원(懇願)][원망(願望)]의 표현가치를 구현한다. (2)에서 화자는 「彼女とのデート」라는 표현에서 남성으로 청자도 「お父さん」이라고 지칭되고 있어 남성으로 판명되고, 가족 호칭에서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로 상정된다. 화자가 이전부터 데이트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청자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邪魔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이때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화자의 품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3)도 (1)(2)와 마찬가지로 남성 화자 「僕」와 남성 청자 「お父さん」 사이의 발화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사진을 붙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화내용만으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 「貼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2.2 청자(남성)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4) 兄さんも忙しいし、僕は大丈夫だから、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 お兄ちゃん、僕の部屋に勝手に入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6) 先輩、男子寮のたんすは丈夫じゃありませんから、入れすぎ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는 남성 화자인 「僕」가 남성 청자인 「兄さん」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발화로서 청자는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同位者)이거나 상위자(上位者)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가 자신에 대한 청자의 배려를 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실현한다. (5)도 (4)와 마찬가지로 남성 화자 「僕」와 남성 청자 「兄さん」 사이의 발화인데,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상정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入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품위 유지에 이어진다. (6)은 남성의 선후배 사이의 발화인데 발화 내용이 화자의 청자(선배)에 대한 조언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하지도 소원하지 않은 소위 중립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入れすぎ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2.3 청자(남성)와 화자(남성)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7) 君と僕の仲なんだから、そんな水臭い言い方は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8) ？ ほんと目障りなんだよ。授業中に女の子とイチャイチャ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9) お互い子供を持つ父親同士の下らないギャグですから、真剣に考え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7)에서 남성 화자 「僕」와 남성 청자 「君」의 대우표현상의 인간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를 돕고 싶다고 하는 발화내용에서 화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言い方は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8)에서 화자는 「~んだよ」와 같은 남성 전용의 문말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도 「女の子とイチャイチャする」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으로 간주되며, 해당 발화는 수업 중의 남학생끼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イチャイチャ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동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 acceptability)가 떨어진다. (9)는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화자와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발화내용에서 화자와 청자는 경어적으로 동위자로 상정되지만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여겨진다. 「考え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2.4 청자(남성)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

(10) ? ねえ、裕ちゃん、お兄ちゃんがあやまるから、もうすね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1) ?? おい、裕、俺の顔に泥をぬるようなこと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2) 小池君、今日はこの後、僕ら再就職組と新卒組の合同新人社員研修がありますから、帰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0)에서 남성 청자「裕ちゃん」은 남성 화자「お兄ちゃん」에 대해 경어적으로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설정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 대해「ねえ」와 같은 감동사와「ちゃん」과 같은 접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화자가 청자를 달래고 있다는 발화내용에서 양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すね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 효과 - 여기에서는 농담 - 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 acceptability)가 떨어진다. (11)에서 화자는「俺」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도「裕」라는 이름에서 남성으로 상정되고, 따라서 청자는 화자와 경어적으로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규정된다. 문중에「おい」라는 감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俺の顔に泥をぬるな」와 같이 불쾌감이나 책망과 질책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이해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泣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 acceptability)가 낮다. (12)에서 화자와 청자는「僕ら」라는 표현에서 남성으로 간주된다. 화자가「再就職組」에 속해 있고 청자가「新卒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해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판단된다. 발화내용이 합동 신입사원 연수가 있으니 돌아가지 말라는 중립적인 내

5) (12)(30)(48)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고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가 불명인 경우, 和田康二氏(仁荷大学校 大学院 博士課程(長安大学 教授), 男性, 52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를 현실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 上田浩子氏(仁荷大学校 大学院 博士課程, 女性, 30세)는 당해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가 현실세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본 논문의 (12)(30)(48)은 上田浩子氏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원어민의 직관과 내성에 있어서 개인차(個人差)와 성차(性差)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용을 나타내고 있어 양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여겨진다. 「帰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2.5 청자(남성)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

(13) ? 裕ちゃん、パパがあやまるから、もうすね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4) ?? おい、裕、お前のすることにお父さんは口出ししないつもりだけど、お父さんの顔に泥をぬるようなこと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5) 山下君、年寄りのわがままですまないが、生前の妻の希望で、遺影は飾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6)]

(13)에서 화자는 자신을 「パパ」라고 지칭하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는 「裕」라는 이름에서 남성으로 상정되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관계와 화자가 청자에 대해 호칭 접사 「ちゃん」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すね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 효과(농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가 떨어진다. (14)는 (13)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6) (15)(33)(51)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이고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가 불명인 경우, 和田康二氏(仁荷大学校 大学院 博士課程(長安大学 教授), 男性, 52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를 현실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 上田浩子氏(仁荷大学校 大学院 博士課程, 女性, 30세)는 당해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가 현실세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본 논문의 (12)(30)(48)은 上田浩子氏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원어민의 직관과 내성에 있어서 개인차(個人差)와 성차(性差)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점에서 화자와 청자 모두 남성으로 간주되며 청자「裕」는 화자「お父さん」에 대해 경어적 하위자로 설정되고 있다. 문중에「おい」와 같은 감동사와「お前」라는 인칭대명사가 쓰이고 있고,「お父さんの顔に泥をぬるな」에 상당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간주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15)에서 화자는「生前の妻」라는 표현에서 연배의 남성으로, 청자는「山下君」이라고 불리고 있어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간주되며, 장의를 담당하는 청자에게 자기 처의 영정 사진을 걸지 말라는 발화내용에서 양자의 친소관계는 중립적이라고 해석된다.「飾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한편 존경어의 정중체 표현인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12)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거나, (15)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것은 청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권위・품위・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표현의도에서 유발하는 것으로 경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의뢰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6 청자(남성)와 화자(남성)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

(16) ショックを受けるといけないから、今、僕が話したことは君の奥さんには言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7) 奥さんにばらされたくなかったら、これ以上、うちの女房に近寄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 裕君、僕のほうから話してみますから、彼には言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6)은 남성 화자인 「僕」가 남성 청자인 「君」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청자의 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발화인데, 「僕」나 「君」와 같은 인칭대명사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는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자 배우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가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言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17)에서 화자는 「うちの乳房」라는 표현에서 남성으로, 청자도 「奥さんにばらされたくなかったら」라는 표현을 통해 남성으로 간주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발화인데, 문의 내용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분노나 질책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경의도가 가장 높은 형식인데 「近寄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사이에서는 경의(敬意)의 역효과(逆效果)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으름장][협박]의 의미를 실현한다. (18)에서도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남성으로, 청자는 「裕」라는 이름을 통해 남성으로 상정되나 「僕」나 「裕君」이라는 호칭만으로는 양자의 상하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정 의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규정된다. 「言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이고 또한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Ⅲ. 남성 화자와 여성 청자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다음은 화자가 남성이고 청자가 여성으로 상정되는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예를 검토한다.

3.1 청자(여성)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19) 叔母さん、どうか僕を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0) 母さん、もう嫁いびり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1) 母さん、僕は食べて帰りますから、夕食は準備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19)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는「叔母さん」라는 호칭에서 여성으로 간주되며,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을 내버려둔 채 방치하지 말라고 간원하는 내용의 발화라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묘사되고 있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懇願)][원망(願望)]의 표현가치를 구현한다. (20)에서 화자는 문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嫁いびり」라는 표현을 통해 남성으로 추정되며, 화자가 경어적 상위자인 청자「母さん」에게 며느리를 구박하지 말라는 내용의 발화로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만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嫁いびり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이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21)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 「母さん」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 여성으로 상정되며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로 자리매김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말라는 발화내용은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 「準備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3.2 청자(여성)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22) 姉さん、僕が作った味噌汁、美味しくなくてもがっかり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3) 姉さん、勝手に僕のものをもう使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4) 姉ちゃん、固くなるといけないから、煮すぎ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2)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는 「姉さん」이라고 지칭되고 있어 여성으로 상정되며, 청자는 화자보다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만든 「味噌汁」의 맛이 없어도 놀라지 말라고 부탁하는 발화를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묘사되어 있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がっかり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실현한다. (23)은 (22)와 마찬가지로 남성 화자 「僕」와 여성 청자 「姉さん」 사이의 발화인데, 화자의 소유물을 멋대로 사용하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使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품위 유지에 이어진다. (24)에서 화자의 성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姉ちゃん」이라는 호칭을 통해 남성으로, 청자는 여성으로 상정되며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너무 익히면 음식이 딱딱해진다는 발화내용이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간주된다. 「煮すぎ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3.3 청자(여성)와 화자(남성)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25) ねえ、浩子ちゃん、もし僕が遅れたら待た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6) 私達の士俵は女人禁制ですので、二度と上が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7) 浩子さん、校内のポスターはイベントが終わるまでは、はが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5)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는 「浩子」라는 호칭에서 여성으로 간주된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ねえ」라는 감동사와 「ちゃん」이라는 호칭 접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경어적 동위자로 묘사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발화내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待た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현한다. (26)에서 문중의 「私達の土俵」「女人禁制」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남성이고 청자는 여성으로 설정되고 있고 화자와 청자는 경어적으로 동위자로 간주된다.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발화내용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간주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上が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동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27)에서 화자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자가 청자에 대해 「浩子さん」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으로, 청자는 여성으로 상정되고 양자는 경어적 동위자로 상정된다. 교내 포스터를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떼지 말라는 발화내용은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해석된다. 「はが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3.4 청자(여성)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

(28) ? ねえ、みどりちゃん、お兄ちゃんがお菓子買ってきてあげるから、もう泣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9) ?? おい、みどり、許可無く俺のものを勝手にさわ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0) 洋子先生、僕のクラスはこれから試験を行いますから、試験内容に関し話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28)에서 여성 청자 「みどりちゃん」는 남성 화자 「お兄ちゃん」에 대해 경어적으로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설정되어 있고,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감동사 「ねえ」와 호칭 접사 「ちゃん」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 대해 울음을 그치도록 달래고 있는 발화내용에서 양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泣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 효과(농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가 떨어진다. (29)에서 청자 「みどり」는 화자 「俺」에 대해 경어적으로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묘사되어 있다. 화자가 청자를 부를 때 「おい」라는 응답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발화내용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이나 책망과 질책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간주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さわ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30)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는 「洋子先生」라는 호칭에서 여성으로 간주된다. 양자는 같은 교원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자는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판단된다. 화자가 청자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부정 의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친소관계를 불명이다. 「話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3.5 청자(여성)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

(31) ? みどりちゃん、パパがお菓子買ってきてあげるから、もう泣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2) ?? おい、みどり、お父さんの知らないところで、これ以上、馬鹿なこと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3) 良子さん、年寄りのわがままですまないが、生前の妻の希望で、遺影は 飾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1)에서 화자는 자신을 「パパ」로 지칭하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는 「みどり」와 같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여성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자리매김된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ちゃん」과 같은 호칭 접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화자가 청자를 달래고 있는 발화내용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泣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 효과(농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가 떨어진다. (32)는 (31)과 마찬가지로 여성 청자 「みどり」는 남성 화자 「お父さん」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묘사되고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おい」라는 감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발화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33)에서 화자는 「生前の妻」라는 표현에서 남성으로, 청자는 「良子さん」이라는 호칭에서 여성으로 간주되며, 연배의 남성이 장의사의 여성에게 발화한 점을 고려하면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판단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처의 영정 사진은 걸지 말라는 발화내용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 「飾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은 존경어의 정중체 표현은 (30)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거나, 혹은 (33)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청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권위・품위・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의(敬意)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6 청자(여성)와 화자(남성)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

(34) みどりちゃん、僕が全部解決しましたから、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5) みどりさん、僕はあまり冗談言う気分じゃないんで、あまりふざけ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6) みどりさん、彼には僕からも注意しましたから、もし点数が足らなかったら単位をや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4)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청자는「みどり」라는 이름을 통해 여성으로 간주되는데, 화자가 전부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발화 내용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대우표현상의 상하관계는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배려가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묘사되어 있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35)도 남성 화자「僕」와 여성 청자「みどり」사이의 발화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농담을 할 계제가 아니니 장난을 치지 말라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경어적 상하관계를 상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 대해 분노나 질책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ふざけ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이고 소원한 사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6)도 남성 화자 「僕」와 여성 청자 「みどり」 사이의 발화인데 만일 점수가 부족하면 단위를 주지 말라는 발화 내용만으로는 양자의 상하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부정 의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으로 설명된다. 「や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이고 또한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Ⅳ. 남성 화자와 청자 불명에 있어서의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다음은 화자가 남성이고 청자가 불명으로 상정되는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예를 살펴보자.

4.1. 청자(불명)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37) 未熟な後輩ですが、僕を置いてい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8) 至らぬ後輩ですが、僕なりに努力しているんですから、あまり悪く書き込ま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9) 「敬老の日」イベントの最後にプレゼントがありますから、僕の話が終わっても席を立た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37)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간주되지만 청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성별이 불명인 발화인데, 화자가 자신을 「後輩」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임을 알 수 있다. 「未熟」「置いていく」와 같은 격의 없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置いていか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懇願)][원망(願望)]의 표현가치를 구현한다. (38)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상정되지만 청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자신을 「至らぬ後輩」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에 비해 상위자로 표현되고 있고, 나쁜 댓글에 대해 화자가 청자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書き込ま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이때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39)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청자는 경로의 날에 입장한 불특정 다수의 노인으로 되어 있어 성별은 불명이고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로 묘사되어 있다. 이벤트 마지막에 선물이 있으니 자리를 뜨지 말라는 발화 내용이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도 불명으로 간주된다. 「席を立た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4.2 청자(불명)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40) これからも連絡しますから、僕の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1) 急用でなければ、あまり夜遅く僕の家に電話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2) 皆さん、防災訓練では僕の指示に従って、避難時には慌てないでくださ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ませんでしょうか。

(40)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이지만 청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고 화자가 자신을「僕」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자는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로 간주된다. 앞으로도 연락을 할 터이니 자신을 잊지 말라는 발화내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忘れ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실현한다. (41)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의 성별은 불명인 발화인데 발화가 전체적으로 정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자가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상위자로 판단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밤 늦게 전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電話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품위 유지에 이어진다. (42)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판명되지만, 청자는「皆さん」라는 호칭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다. 화자가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 방재훈련 시에 자기 지시를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는 화자와 대등하거나 혹은 상위자로 묘사되어 있고, 발화내용이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慌て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3 청자(불명)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43) 僕も頑張るから、君も簡単に諦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4) 僕についてよく知らないのなら、くだらない事は書き込ま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5) 僕も気をつけますが、皆さんもマスコミに踊らされ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3)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판명되지만,「君」는 인칭대명사만으로는 청자의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고「僕」와「君」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화자와 청자는 대등한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발화내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간주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諦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44)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이지만, 인터넷상의 댓글과 관련된 발화이기 때문에 청자의 성별은 불명이다. 화자가 자기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는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경어적 동위자로 간주되고 양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書き込ま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동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45)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이지만, 청자는「皆さん」라는 호칭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다.「僕」「皆さん」과 같은 표현과 문의 내용을 종합할 때 화자와 청자는 경어적 동위자로 간주되는데, 매스컴에 흔들리지 말라는 발화내용은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친소관계는 불명이다.「踊らされ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

4.4 청자(불명)가 화자(남성)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

(46) 僕と君は年も近いんだから、あまり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7) ?? おい、俺のこと、そんなふうに誤解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8) 山田先生、僕のクラスはこれから試験を行いますから、試験内容に関して話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46)에서 화자는「俺」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청자는「君」라는 호칭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다.「俺と君の仲」라는 표현에서 청자는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고, 화자가 청자를 염려하고 있다는 발화내용을 통해 양자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47)도 화자는 남성이고 청자가 불명인 발화인데,「おい」라는 감동사와「俺」라는 인칭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는 화자와 대등하거나 혹은 하위자로 간주된다. 화자가 자신을 오해하는 청자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소원한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誤解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48)에서 화자는「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청자는「山田先生」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다. 문의 내용에서 화자와 청자는 같은 교원으로 간주되는데, 화자가 청자에 대해 지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는 점에서 청자는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 반에서는 지금부터 시험을 치루니 시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발화내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 「話さ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4.5 청자(불명)가 화자(남성)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

(49) 君の気持ちはよくわかるけど、君の将来のためにも彼を訴え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0) ?? おじさんちの子と同級生なんだから、これ以上、いじ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1) 山下さん、年寄りのわがままですまないが、生前の妻の希望で、遺影は飾らないで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

(49)에서 화자는 「君」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남성으로 상정되나 청자는 「君」라는 호칭만으로는 성별을 확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청자에게 「君」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를 고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발화내용을 감안하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친소관계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訴え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50)에서 화자는 「おじさん」이라는 호칭에서 남성이지만, 청자는 「おじさんちの子と同級生」라는 표현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명이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자신을 「おじさん」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청자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여겨지고,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청자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그런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いじ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특히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51)에서 화자는 「生前の妻」라는 표현에서 남성으로, 청자는 「山下さん」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연배의 남성이라는 점에서 청자는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로 간주되며, 장의를 담당하는 청자에게 자기 처의 영정 사진을 걸지 말라는 발화내용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친소관계는 불명이다. 「飾ら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이고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존경어의 정중체 표현인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46)(48)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로 간주되는 경우, (49)(51)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것은 청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권위・품위・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표현의도에서 촉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6 청자(불명)와 화자(남성)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

(52) みなさん、可愛い僕をからか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3) 今まで我慢してきましたが、もう家内には連絡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4) 代わりに僕が飲みますから、彼等にはあまりすす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52)에서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상정되지만, 청자는 「みなさん」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성별을 판정할 수 없고,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 문중에 「可愛い僕」「からかう」와 같은 스스럼없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친한 사이로 규정된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からかわ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의 친한 사이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원망]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53)에서 화자는 「家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남성으로 상정되지만, 문중에 청자는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이고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 처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는 발화내용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도 상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 「今まで我慢してきました」와 같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는 소원한 사이로 해석된다.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가 가장 높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連絡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54)에서도 화자는 「僕」라는 인칭대명사에서 남성으로 여겨지지만, 청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다. 화자가 대신 마실 테니 그들에게 너무 술을 권하지 말라는 발화내용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도 불명이며, 친소관계도 불명으로 해석된다. 「すすめ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이고 또한 친소 관계가 불명인 경우,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중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식이 구비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화자를 남성, 청자를 [남성 / 여성 / 불명]으로 상정하고, 청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대한 화자의 (대우표현상의) 인간관계를 <경어적 상위자 /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 / 경어적 동위자 /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 / 경어적 하위자>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인간관계인 친소관계를 <친한 사이 / 소원한 사이 / 불명>과 같이 3종류로 설정하여, 각각의 언어적・문맥적・상황적 조건 하에서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가 현실세계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성립할 경우 어떤 유형의 표현가치를 실현하는지에 관해 검토했다. 실제 검토에 있어서는 실례의 우연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원어민 화자의 내성에 의한 작례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성부(成否)부터 살펴보자.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8)[남성 화자/남성 청자]과 같이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가 떨어진다. 그리고 (10)[남성 화자/남성 청자](28)[남성 화자/여성 청자]와 같이 청자가 화자와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나, (13)[남성 화자/남성 청자](31)[남성 화자/여성 청자]와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친한 사이에서는 언어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표현 효과(농담)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가 떨어진다. 또한 (11)[남성 화자/남성 청자](29)[남성 화자/여성 청자](47)[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나 (14)[남성 화자/남성 청자](32)[남성 화자/여성 청자](50)[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가 낮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가 실현하는 표현가치를 검토하면,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인간관계인 친소관계가 친한 사이로 규정되는 문맥적・상황적 조건 하에서는 다음과 같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문말이 부정의 이중 정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다. 따라서 (1)[남성 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남성 청자](19)[남성 화자/여성 청자](37)[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4)[남성 화자/남성 청자](22)[남성 화자/여성 청자](40)[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16)[남성 화자/남성 청자](34)[남성 화자/여성 청자](52)[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懇願)][원망(願望)]의 표현가치를 구현한다. (7)[남성 화자/남성 청자](25)[남성 화자/여성 청자](43)[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46)[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 (49)[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친소관계가 친한 사이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표현가치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가 소원한 사이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는 다음과 같다. (2)[남성 화자/남성 청자](20)[남성 화자/여성 청자](38)[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5)[남성 화자/남성 청자](23)[남성 화자/여성 청자](41)[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26)[남성 화자/여성 청자](44)[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35)[남성 화자/여성 청자](53)[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에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을 나타낸다. 한편, (16)[남성 화자/남성 청자]와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 경의(敬意)의 역효과(逆效果)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으름장][협박]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존재한다. 따라서 친소관계가 소원한 사이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표현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3)[남성 화자/남성 청자](21)[남성 화자/여성 청자](39)[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상위자인 경우, (6)[남성 화자/남성 청자](24)[남성 화자/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 청자](42)[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상위자인 경우, (9)[남성 화자/남성 청자](27)[남성 화자/여성 청자](45)[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 (12)[남성 화자/남성 청자](30)[남성 화자/여성 청자](48)[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 (15)[남성 화자/남성 청자](33)[남성 화자/여성 청자](51)[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 (18)[남성 화자/남성 청자](36)[남성 화자/여성 청자](54)[남성 화자/청자 불명]과 같이 청자와 화자가 경어적으로 불명인 경우에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이에 친소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의 표현가치를 실현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어적 하위자가 상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존경어의 정중체 표현인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12)(30)(46)(48)과 같이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거나, (15)(33)(49)(51)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것은 청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권위・품위・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의(敬意)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경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뢰표현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적례(適例)라고 해석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李成圭(2007a)「日本語 依頼表現 研究의 課題」,『日本学報』 70輯, 韓国日本学会, pp.111-124.
_____(2007b)「<お/ご~くださる> 계열의 서열화 및 사용가능성에 대해」,『日本学報』71輯, 韓国日本学会, pp.93-110.
_____(2007c)『일본어 의뢰표현Ⅰ-肯定의 依頼表現의 諸相-』, 시간의물레, pp.16-55.
_____(2008a)「일본어 의뢰표현의 유형화 및 서열화에 대해-<てくれる>계열・<てもらえる>계열을 대상으로 하여-」,『日本学報』74輯, 韓国日本学会, pp.17-34.
_____(2008b)「의뢰표현 <てくださるか>에 관한 재론」,『日本学報』76輯, 韓国日本学会, pp.97-115.
_____(2008c)「의뢰표현 <てくださらないか>에 관한 재론-시대물을 대상으로 하여-」,『日本学報』77輯, 韓国日本学会, pp.45-56.
_____(2009)「의뢰표현 <てくださらないか>에 관한 재론-현대물을 대상으로 하여-」,『日本学報』79輯, 韓国日本学会, pp.87-100.
_____(2010a)「「おっしゃる」와 「言われる」의 사용상의 기준-신약성서(신공동역)의 4복음서를 대상으로 하여-」,『日本学報』82輯, 韓国日本学会, pp.99-110.
_____(2010b)「잉여적 선택성에 기초한 「なさる」와 「される」의 사용상의 기준-신약성서(신공동역)의 4복음서를 대상으로 하여-」,『日本学報』84輯, 韓国日本学会, pp.209-225.
_____(2011a)「ナル형 경어와 レル형 경어의 사용상의 기준-복수의 존경어 형식이 혼용되고 있는 예를 중심으로-」,『日本学報』86輯, 韓国日本学会, pp.121- 141.
_____(2011b)「ナル형 경어와 レル형 경어의 사용실태-화체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日本学報』87輯, 韓国日本学会, pp.39-52.
_____(2011c)「사용상의 기준과 복음서 간의 이동-ナル형 경어와 レル형 경어의 사용실태를 대상으로 하여-」,『日本語教育』56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75-203.
_____(2012)「<ないでもらえる>계열의 의뢰표현-각 형식의 사용실태 및 표현가치(정중도)를 중심으로 하여-」,『日本学報』92輯, 韓国日本学会, pp.63-83.
_____(2013a)「의뢰표현 <ないでくださいますか>의 표현가치」,『외국학연구』 23輯, 중앙대학교 외국학 연구소, pp.121-138.
_____(2013b).「<ないでくださる？><ないでくださらない？>の依頼表現-使用実態および使用可能性、そして表現価値 -」,『日本学報』95輯, 韓国日本学会, pp.47-61.
_____(2014a)「의뢰표현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か>의 운용 실태와 표현가치」,『외국학연구』27輯, 중앙대학교 외국학 연구소, pp.235-255.
_____(2014b)「<ないでくださるでしょうか>의 의뢰표현-사용 가능성 및 표현가치-」,『日本学報』99輯, 韓国日本学会, pp.137-1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庭三郎(2004)『現代日本語文法概説』(net版).
文化庁(2007)『敬語の指針』(文化審議会答申), 文化庁. pp.30-55.

❖ 투고일 : 2014.06.24
❖ 심사완료일 : 2014.07.21
❖ 게재확정일 : 2014.08.1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사용 가능성 및 표현가치
-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

이성규

본 논문에서는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가 현실세계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성립할 경우 어떤 유형의 표현가치를 실현하는지에 관해 검토했다. 실제 검토에 있어서는 실례의 우연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원어민 화자의 내성에 의한 작례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의 성부(成否)부터 살펴보자.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ないでくださる> 계열의 의뢰표현 중에서 경의도(敬意度)가 가장 높은 형식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가 경어적 동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허용도(許容度, acceptability)가 떨어진다. 그리고 청자가 화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나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의 소원한 사이에서 남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는 자연스러운 발화로서의 용인도(容認度, acceptability)가 낮다.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가 실현하는 표현가치를 검토하면,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인간관계인 친소관계가 친한 사이로 규정되는 문맥적・상황적 조건 하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경의(敬意)]를 나타내면서 [간원(懇願)][원망(願望)]이나 [배려][정중]의 표현가치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친소관계가 친한 사이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표현가치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소관계가 소원한 사이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와 상관없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정중함]이라는 표현가치를 나타낸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관계없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의(敬意)]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해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경어(敬語) 본연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어적 하위자가 상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존경어의 정중체 표현인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는 (12)(30)(46)(48)과 같이 청자가 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와 경어적 동위자이거나 하위자이거나, (15)(33)(49)(51)과 같이 청자가 화자에 비해 경어적 하위자인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것은 청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권위・품위・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의(敬意)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경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뢰표현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적례(適例)라고 해석된다.

Key Words : <ないで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 사용 가능성, 상하관계, 친소관계, 표현가치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Practical Availability and Value of Expression in *Naide-Kudasaimasen-Desyouka*

- Focused on a male speaker -

Lee, Sung-kyu

This paper examines whether *Naide-Kudasaimasen-Desyouka* is available for practical usage and if it is available, what kind of value of expression it realizes. In actual state of examination, the paper adopts examples from native's intuition to supplement a coincidence caused by cited insta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establishing requisite of *Naide-Kudasaimasen-Desyouka*. *Naide-Kudasaimasen-Desyouka* is the highest form of honorific expressions from the request expression of *Naide-Kudasaru* types that contains low acceptability as a natural locution in estranged relationships where the speaker is of equal seniority to the listener, and a male speaker. In estranged relationships where the listener is of equal or lower seniority to the speaker, or lower seniority than the speaker, and a male speaker, the acceptability is also low as a natural locution.

To examine the value of expression *Naide-Kudasaimasen-Desyouka* realizes, in contextual and situational condition where the speak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defined as an intimate relationship, the expression presents [politeness] of the speaker toward the listener with the value of expression of [solicitation][request] or [consideration][courtesy]. Hence, in the case of an intimate relationship, we can find that the value of expression is different from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lso, in situations where the speaker's degree of intimacy toward the listener is defined as an estranged relationship, except for a few cases, the expression presents the speaker's [unpleasantness] toward the listener with the value of expression of [politeness] regardless of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the interlocutor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 case of an undef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t is considered that the expression contains neutral meaning of honorific expression by realizing the speaker's [respect] toward the listener regardless of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the interlocutors.

On the contrary, *Naide-Kudasaimasen-Desyouka*, a polite form of honorific expression, is generally used by a person in honorific lower seniority toward a person in higher seniority, however, it is also used when the listener is of honorific equal or lower seniority than the speaker as in (12), (30), (46), and (48), or the listener is of lower seniority than the speaker as in (15), (33), (49), and (51). This arises from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 authority, dignity, and reputation of the speaker by having a distance from the listener. Thus, this is the case in point representing the peculiarity of request expressions in an honorific language.

Key Words : *Naide-Kudasaimasen-Desyouka*, practical availability, hierarchical relationship, degree of intimacy, value of expression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